

1. 엘리베이터에서

- 평상시 운행 도중 비상 정지 스위치는 절대 누르지 말 것
- 도어에 물건이 끼이거나 정원 초과 시에는 안전장치가 작동하므로 간힘사고에 유의
- 내부에서 뛰거나 주행 중에 호기심으로 도어를 열려고 스위치를 누르지 말 것
- 승강 도어 및 카 도어 문턱 홈의 청소 불량으로 고장 발생이 가능하므로 주의
- 화재 시에는 절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피난 계단을 이용할 것
-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행 중인 카를 가장 가까운 층에 정지시킨 후 긴급 대피
- 화재발생 시에는 불길이나 연기가 없는 층에서 정지한 후 신속히 대피
- 사고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119 구조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릴 것

2. 부탄가스 폭발 예방

1) 부탄가스의 독성

- 공기보다 무겁고, 물에 잘 녹지 않으며, 무색의 기체로 특이한 냄새가 난다. 인화점(섭씨 -72도)과 발화점(섭씨 365도)이 낮아 매우 위험하다.
- 문제점
 - 청소년들의 부탄가스 흡입으로 비행과 탈선의 원인이 되며 범죄 가담 우려
 -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
 - 본드, 신나 등 유기용제는 마약류의 개념에서 제외되어 있음
 - 가스의 남용과 판매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없음
- 예방대책
 - 취급 시 화기엄금 및 급격한 양의 방출을 억제하고 소량씩 보관 사용
 - 정전기 등 불꽃과 점화에너지를 완전 차단(선풍기, 환

풍기 등 전기제품 사용금지)

- 누출 시 낮은 곳에 체류하므로 부채나 방석 등으로 환기
-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실시
- 누설 시 종이에 흡수하고 완전 증발시킨 후 안전한 곳에서 태운다.

3. 전기 안전사고 예방

1)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는다.

-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주택 전기설비에 대하여 2년에 한번씩 무료 점검 실시
- 습기가 있는 곳은 감전 위험이 있으니 주의한다.
 - 세탁실, 주방, 목욕탕 등 습기와 물이 많은 곳의 가전 기기 사용은 감전의 위험
 -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평상시 주의하여 사용
- 합선과 용량 초과는 화재위험이 있으니 정격용량 시설을 설치 사용한다.
 - 옥내 전기설비의 용량을 무시한 문어발식 코드의 과다 사용 금지
- 전기설비의 개·보수는 전문 공사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한다.
 - 공사비가 비싸다고 전파상이나 무면허 전공에게 공사를 맡기면 필요없는 부분을 고치거나 잘못 고쳐 더욱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.
- 파손된 콘센트, 플러그는 감전 및 화재위험이 있다.
 - 파손과 접촉이 헐거운 곳은 교체하고 플러그는 몸통을 잡고 뽑거나 뺀다.
- 노후 된 전기시설은 합선이나 누전의 원인이 된다.
 - 피복이 벗겨졌거나 갈라진 전선의 방치, 불량전기 시설의 과다한 사용, 불량 휴즈나 파손된 스위치 및 콘센트 등은 합선이나 누전의 원인이 되어 전기화재나 감전의 우려가 높다.
- 부적합 설비의 방치는 전기재해 및 전력 손실 원인이 된다.
 - 부적합 설비를 방치하면 전기재해와 전력 손실을 일으킬 수 있으며 행정관청으로부터 전기사용에 대한

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이렇게

제한 또는 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.

4. 가스 안전사고 예방

1) 우리가 사용하는 가스는 2종류

- 무거운 LPG : 가스통으로 공급받는 가스로서 프로판과 부탄이 주성분으로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가 새면 바닥에 고이게 됨.
- 가벼운 LNG : 도시가스 사용 지역의 모든 가스가 LNG라고는 할 수 없으나 메탄이 주성분으로서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가 새면 천장 쪽으로 올라가서 체류하게 됨.
- 지역마다 다른 도시가스 : 배관을 통하여 공급받는 모든 가스를 말하며 사용가스는 지역마다 다르나 공급관이 설치된 지역(부산지역 포함)은 공기보다 가벼운 LNG를 사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공기가 혼합된 LPG를 공급하고 있음.

2) 안전수칙

- 사용 전 : 가스불을 켜기 전 가스 냄새가 나는지 살펴보고, 가스 냄새가 날 때는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시킨 후 사용.
- 사용 중 : 점화를 할 때는 불구멍을 바라보아 확실히 불이 붙었는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불이 붙지 않은 것을 모르고 방치하면 폭발 등의 위험이 있음.
- 사용 후 : 점화 코크와 중간 밸브를 함께 잠그고 장기간 집을 비워둘 때는 용기밸브나 메인 밸브까지 잠가야 안전함.
- 평상 시 : 코크와 호스, 호스와 연소기 등의 이음새 부분과 호스 등에서 가스가 새지 않는지 비눗물이나 점검액 등으로 수시 점검을 한다.

3) 사용기구의 정기점검

- 가스렌지 : 연소기 불구멍이 막히면 붉은 불꽃이 일어나 불꽃이 갈라져 위험함. 사용 후 버너 헤드를 틀어내어 솔로 문질러 깨끗이 청소할 것.
- 가스오븐렌지 : 조리를 끝낸 후 오븐이 식었을 때 내부를 행주로 깨끗이 닦아주어 내부 상태를

살필 수 있도록 할 것

- 가스 온풍기 : 공기 필터가 먼지 등으로 막히면 온풍 효과가 떨어지므로 온도를 자주 높여 가스를 낭비하게 되므로 공기 필터를 떼어내어 전기 청소기 등으로 먼지를 제거하여 사용.
- 가스난로 : 세라믹 버너에 먼지 등이 붙으면 가스가 완전히 타지 못하므로 세라믹 버너의 먼지를 깨끗이 털어 낼 것.

4) 가스 보일러 관리

- 배기통 : 배기통이 보일러에서 빠져 있거나 꺾인 곳, 구멍난 곳이 없는지 살펴보고, 배기통 안의 이물질 제거하여 폐 가스 역류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사전 방지.
- 난방수 : 장기간 켜지 않은 보일러를 가동할 때는 드레인 밸브를 열어 난방수가 깨끗한지 살펴보고 검거나 오염되어 있으면 물을 바꾸어야 함.
- 환기 : 빗물이나 찬바람이 들어온다고 환기 구멍을 비닐 등으로 막으면 위험.
- 보일러 이상 : 연소 상태가 이상하거나 과열, 소음, 진동, 이상한 냄새가 날 때는 즉시 보일러를 끄고 가스를 잠근 다음 전문가를 불러 수리 후 사용.

5) 가스가 새는 경우 조치할 사항

- 마늘 썬 냄새 : 원래 가스는 냄새가 없지만 가스가 셀 때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냄새가 나는 물질을 섞어 놓았음. 집안에서 냄새가 나면 즉시 아래와 같이 조치할 것.
 - 침착하게 밸브를 잠근다 : 최대한 빨리 점화 코크, 중간밸브, 용기밸브나 메인 밸브를 모두 잠글 것
 - 자연환기를 하고 : 창, 출입문 등을 모두 열어 빨리 환기를 하면서 비, 방석, 부채 등으로 가스를 쓸어 내어야 하며, 이때 환기팬이나 선풍기 등을 사용하면 전기스파크에 의하여 폭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전기용품에 손대지 말 것.
 - 수리 : 가스가 새는 곳을 찾아내어 수리 후 사용할 것. **Z**

자료 : 부산진 소방서